

제주의 허파 꽃자왈

제주의 꽃자왈은 수풀이 우거진 원시림 지대이다.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꽃자왈. 그곳에서 우리는 생태계의 숨소리를 느끼고, 신비스러운 자연의 힘에 매료된다.



청수로 |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633 ~ 한경면 청수리 147-1(약 2.4km)

청수평화길 |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71-1 ~ 한경면 청수리 197-1(약 0.4km)

청수목장길 |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59-5 ~ 한경면 청수리 90-2(약 0.3km)

산양1길 |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3213-3 ~ 한경면 낙천리 1043-1(약 1km)

수룡2길 |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462-1 ~ 한경면 청수리 2530-3(약 0.6km)

연명로 |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3329-1 ~ 한경면 저지리 3139-1(약 5.7km)

추가흘길 |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3060-1 ~ 한경면 저지리 3096-2(약 0.9km)

불그뭇로 |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937-1 ~ 한경면 낙천리 3338(약 2.3km)

청수로 | 청수곶자왈



청수곶자왈

청수로는 청수리의 중심도로이다. 청수리는 과거 설물촌, 청효수, 청수물 등으로 불렸다. 모두 물과 관련된 이름들인 것을 보면 과거 이 지역은 중산간 마을이면서도 물이 잘 나는 마을이었을 것이다. 현재는 맑은 물이 난다는 의미로 청수리(淸水里)라 부르고 있다. 청수리 동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다. 바로 제주의 독특한 자연을 보여주는 청수곶자왈이다.

곶자왈은 나무와 덩굴로 우거진 숲을 이르는 제주어이다. 곶자왈은 하나의 숲에 북방계에서 주로 자라는 식물과 남방계에서 주로 자라는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장소라는 점에서 독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곶자왈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제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도 곶자왈을 터전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수리의 곶자왈은 북쪽으로는 저지리에서 남쪽으로는 신평리까지 꽤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어져 있다. 곶자왈은 색다른 매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길을 잃을 위험이 있어 정해진 길로만 다니는 것이 좋다. 특히 오후 늦게 곶자왈에 들어서게 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는데 곶자왈에 우거진 숲 때문에 주위보다 빨리 어두워져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곶자왈은 그동안 골프장 등의 개발 사업으로 많은 곳이 사라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곶자왈에 대해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제주의 새로운 자연자원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되고 있다. 인공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오늘날, 원시림의 숨소리를 느끼며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곶자왈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제주가 오래도록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생태계의 보고이다.

청수평화길 / 청수목장길 | 평화동과 청수목장

청수평화길은 청수리 평화동의 마을 이름을 반영한 도로이다. 평화동은 옛날 지거울이라 불리던 동네인데 4·3사건 때 소개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마을을 재건하면서 평화동으로 이름을 지었다. 평화동 청수곶자왈은 청수리의 마을목장으로 활용되곤 했다. 청수

리 목장으로 이어지는 **청수목장길** 역시 꽃자왈을 향해 나 있다. 그래서 꽃자왈을 걷다보면 한가로이 풀을 뜯는 말들을 만나기도 한다. 청수리에서는 꽃자왈을 포함한 청수공동목장에 자생하는 식용야생식물과 야생화를 활용해서 마을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수로 | 가마오름

청수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보면 가마오름이 나온다. 가마오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군사시설로 활용했던 갯도진지가 남아있는 곳이다. 전쟁 막바지에 열세에 놓인 일본군은 결7호 작전을 통해 일본열도를 포함해 끝까지 사수할 곳을 정했는데 거기에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각종 군사시설을 제주에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7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제주에 주둔시켰다. 이때문에 제주의 많은 오름에 갯도진지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가마오름의 갯도진지는 바다를 감시하던 해안가의 갯도진지와 달리 제주도 서부 지역을 담당하던 지휘부가 머물던 요새였다. 그렇게 중요한 곳인 만큼 갯도진지는 3층 구조의 미로형태로 여러 갈래의 길이 뚫려 있어 모르는 사람은 길을 쉽게 찾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가마오름의 갯도진지는 송악산 일대의 갯도진지와 더불어 전쟁으로 인한 제주의 피해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가마오름

산양1길 / 수룡2길 | 산양리와 수룡동

산양1길이 지나는 산양리는 청수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과거에는 행정구역 상 청수리에 속하다 청수리 2구에 속하던 마을들이 갈라져 나와 산양리를 새롭게 형성했다. 산양리의 뜻은 마을 주변에 산이 많아서 산의 양(陽)의 기운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한다. 산양리의 한 마을인 수룡동(水龍洞)은 수룡이라고도 불렀는데 산에서부터 내리는 물이 마을을 지나 흘러가는 모양이 마치 용이 헤엄을 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부른 이름이라고 한다. 이 마을을 지나가는 길들은 **수룡2길**과 같이 수룡동의 명칭을 반영했다.

연명로 / 주가홀길 | 연화동과 명이동

연명로는 청수리 동쪽을 지나는 녹차분재로와 서쪽을 지나는 중산간서로를 이어주는 길이다. 산양리의 연화동과 저지리의 명이동을 연결하는 길이라서 각 마을의 한 글자씩을 따서 연명로라는 이름을 붙였다. 연화동은 마을 안에 역귀뚝이라 부르는 연못에 연꽃이 피는 동네라고 해서 연화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 마을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말을 방목하는 사람들이 밭과 가까이에 거주지를 마련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명이동은 ‘맹이눈’이라는 옛 명칭이 있는데,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장님과 같이 다른 마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한다. 곳자왈에 가까운 위치여서 나무가 많았던 명이동은 화전을 하거나 숲을 구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을 이루었다. 명이동은 산과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4·3사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작은 마을이었던 주가홀을 비롯해 대부분의 마을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다. 명이동에 나 있는 주가홀길은 화마를 겪은 주가홀 마을을 기억하기 위한 이름이다.

불그뚝로 | 신성동

불그뚝로는 조수리에서 낙천리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이 길이 지나는 조수2리는 과거 땅이 붉고 점토질이라서 비가 내리면 붉은 물이 흘러 고인다고 해서 ‘붉은뚝’이라고 불려왔다. 불그뚝로는 이런 의미를 반영한 이름이다. 조수2리는 붉은 땅을 한자로 표현한 주지동(朱地洞)으로도 불리다가 4·3사건에 휩쓸려 마을이 소개되는 아픔을 겪은 후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마을을 재건하고, 신성동(新城洞)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